

조선녀성의 노래

역사가 전하는 여성에 대한 노래들을 더듬어 보며

우리 조선녀성들은 세상에 당당히 자랑할만 한 자기의 노래보물고를 가지고 있다. 그 어느 나라 녀성들에게도 조선녀성들이 가장 귀중한 재보로 여기고 있는 명목의 보물고, 그릇껏 심원하고 황홀한 음악세계는 없었으리라.

3. 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는 수많은 여성에 대한 명목들은 어떻게 태어났던가. 한편편에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그 노래들은 력사에 어떤 위대한 진리를 새겨주고 있는 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훌륭한 전통과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민들의 우리 민족사를 돌이켜보면 놀랄게도 여성에 대한 노래는 거의 찾아볼수 없다.

조선고대문화사의 첫 페이지를 올라오는 《공후가》, 남편을 잃은 녀성의 슬픔을 노래한 이 고대가요의 기록이후 여성에 대한 노래는 수천년의 공백을 력사에 남겼다. 봉건시대에 와서 《아리랑》이나 《물레타령》과 같은 몇몇의 서글픈 가요가 있을뿐 여성에 대한 노래는 기록은 물론 구전으로 전해지지조차 않았다.

민족의 혈통을 이어주고 생활의 흐름을 엮어주는 주인공들이 바로 녀성들이었다. 력사는 그들에게 노래를 주지 못하였다.

인류문명의 꽃피를 해쳐보아도 고대와 중세, 현대에 이르는 기나긴 년대들에 녀성들에 대한 노래는 극히 드물었다.

력사는 왜 녀성에게 노래를 줄수 없었는가. 음악은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 대한 예술적 반영이다. 자연과 사회, 력사의 주인공인 인간에 대한 노래는 맑아도 여성에 대한 노래가 창작되지 못한것은 바로 당대 사회들이 녀성을 인간의 세계밖으로, 음악의 대상밖으로 밀어내었기때문이다.

집콕의 수천년력사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조선녀성들,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녀성들보다 더 비참한 운명을 대대로 팔자처럼, 유산처럼 이 어찌하는 우리 녀성들이었다. 이를 석자마자 못 가진 조선녀성이 어떻게 자기의 노래를 가질수 있던 말인가.

하지만 오늘날 조선녀성들은 5천년 민족사가 주지 못한 노래보물고를 가지고 있다. 이득한 반만년에 자기의 노래라고는 다섯 손가락에도 꼽기 힘든 구슬은 실음의 가요가 전부였더니 나라 녀인들이 지금은 마치도 갖가지 아름답고 황홀한 꽃들이 만발한 대화원과도 같은 거창한 음악세계속에서 마음껏 노래부르고 행복하게 살며 일하고 있다.

조선녀성의 노래, 이를 논할 때 우리 녀성들이 제일 먼저 펼쳐보게 되는것은 조선의 첫 녀성혁명가들이인 령도의 녀투사들이 남긴 혁명가요유산이다.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청춘의 붉은 꽃 피운 원한...

혁명가요 《녀성해방가》는 항일혁명이 낳은 첫 명목들중의 하나이다. 《녀성해방가》, 《녀투사사》와 같은 녀성혁명가들의 노래에는 작가, 작곡가의 이름이 없다. 그것은 이 투쟁의 노래들의 주인공들이 한두명의 녀성들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깨달고 운명의 불순화처럼 시들어가던 숙명의 지난날과 단호히 결별하고 투쟁에 나선 조선의 첫 세대 녀성혁명가집단이었기때문이다.

작고 연약한 꽃송이에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담아 《봉선화》 노래를 서글프게 부르던 이 나라 녀인들의 비참한 인생을 두고 놀라운 혁명가요를 지어낼수 있었는가.

조선녀성대전의 첫 갈피에 길이 빛나고 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와 《이리》가 그에 대답을 주고 있다.

이 나라 녀인들의 비참한 인생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혁명의 불길속에서 그들을 자기 운명의 강인한 주인으로 키우시려는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속에서 태어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참다운 조선녀성의 노래의 첫 대문을 열어주었다.

1930년대 항일혁명의 진주들이서 널리 불리워졌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꽃피는 처녀》와 《이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꽃피는 처녀》의 주제가 《꽃피는 처녀》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이리》의 주제가 《이리》에는 설움과 눈물의 꽃을 팔며 온갖 멸시를 받아야 했고 생애같은 남편과 자식을 침략자의 총칼에 잃어도 피눈물만 삼켜야 했던 꽃봉이와 울남이 어머니와 같은 이 나라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조선녀성들의 운명개척의 방도가 누구에게나 알기 쉽게 뚜렷이 밝혀져 있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제사상의 진리가 반영된 이 명작들은 어제날 눈물의 《봉선화》의 주인공들이었던 조선녀성들이 혁명가요 《녀성해방가》의 주인공으로 자기 운명을 극적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한 령도의 종소리, 혁명의 격문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참다운 노래들이 태어났수 있는 귀중한 짝과 불씨가 되어준 서곡과도 같았다. 그 어떤 심오한 저서보다 이 나라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

세계명곡집에는 개별적인 작곡가들이 지은 편정가들이나 한두명의 녀성작곡가들이 지은 녀성들의 심리정서세계를 반영한 서정가요들도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서정과 따뜻한 정세계를 노래한 작품들은 있었어도 당대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 운명과 처지를 변혁하기 위한 의의있는 혁명사상을 힘있게 구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녀성들의 운명문제를 심오하게 밝혀준 참다운 녀성의 노래는 찾아볼수 없었다.

과연 인류력사와 력사대에 녀성들이 자기의 노래라고 당당히 자부하며 녀성공동의 재보로 사랑하고 즐겨 부를 노래들이 몇몇이나 없었는가.

녀성들이 창조한 문화재보가 적어서도 아니고 녀성해방운동의 력사가 짧아서도 아니다. 또 재능있는 녀성작곡가가 없어서도 아니다.

녀성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고 녀성들의 운명개척이 진행되면서 혁명적변화가 일어날 때 녀성의 고전적명작들이 《꽃피는 처녀》

만, 녀성들이 력사무대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당당히 등장할 때에만 진정한 녀성의 노래가 태어날수 있음을 조선녀성의 운명사, 조선녀성의 음악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노래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과 인간들의 구체적인 생활감정이 비친다. 노래는 해당 시대 인간들의 운명과 사회적위치, 그 존재가치를 알수 있게 하는 생동한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녀성들이 노래의 주인공으로 나서서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그려내는데는 력사에 새겨넣은 피를 들이켜야 하는 것이다.

손에 무장을 잡고 혁명의 길에 걸연히 나선 항일의 녀투사들이 처음으로 불렀던 《녀성해방가》, 《녀투사사》!

결코 고요한 음악실의 피아노건반에서 태어난 노래들이 아니었다. 백두의 눈보라를 반주삼아, 백두의 총성을 리듬삼아 실현풍속에서 태어난 선율이었다고 혁명의 진리를 깨달은 녀투사들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력사에 새겨넣은 피를 들이켜야 하는 것이다.

온갖 무런리와 분권적악, 침략자의 구두발발에 짓밟혀 눈물로 옷고름을 적시며 슬픔의 《아리랑》, 《봉선화》를 부르던 녀성들이 인류력사에 있어본적이 없었던 희망과 격동, 기백으로 약동하는 녀성혁명가들의 새 노래들을 부르게 된것은 조선녀성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사변이었다.

조선녀성의 새 노래들의 출현, 그것은 봉건적질곡에 의해 수천년동안 뒤고방에 갇혀 있던 조선녀성들이 혁명적의 빛 1선에 당당히 나섰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린 력사의 선언과도 같은 시대의 메아리였다. 조선의 녀성혁명가들이 부른 혁명가요들은 노래이전에 세상에 가장 힘있게 구가한 조선녀성들이 선형로써 자기의 새 력사를 쓴 운명개척의 자랑스러운 첫 벗이었다. 혁명가요들을 부르며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딸들을 애국의 일념으로 사랑을 불태우고 남성들조차 감당하지 어려운 육체적부담과 정신적고통을 겪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을 일제를 조국방위에 불타이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생명도 청춘도 가경도 다 바쳤다. 원수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녀투사, 불꽃의 총구앞에서 《적기》의 노래로 원수들을 진멸케 한 투사들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혁명의 노래들이 울리고 있었다.

항일의 녀투사들의 신성한 박동이 그대로 살아 맥동하는 노래, 선명함의 피와 목숨과 바꾼 조선녀성들의 노래는 바로 이렇게 태어났다.

녀성들의 사회적처지의 개선이나 극적인 운명전환은 시대와 력사가 저절로 가져다 주는것이 아니며 녀성에 대한 명목은 그 어떤 뛰어난 작곡가나 작가가 있다고 하여 태어나는것이 아니다. 5천년 민족사가 새겨진 조선녀성의 운명고 녀성의 음악사는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때 노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수 있으며 참다운 녀성의 노래는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투쟁속에서 태어난다는것을 온 인류력사와 력사대에 녀성들이 하나의 진리로 새겨주었다. 또한 자주적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힌 위대한 주제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와 어제도 오늘도 레일도 영원히 주제의 명맥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는 조선녀성의 노래의 변함없는 혁명적정신을 다시금 뚜렷이 확고히 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꽃피는 처녀》

와 《이리》, 혁명가요 《녀성해방가》, 《녀투사사》와 같은 귀중한 혁명가요유산들이 있었기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노래는 그 어떤 천지공자속에서도 사소한 변색을 모르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힘있는 녀성혁명가들의 노래로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과 인민은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조선녀성의 새 노래들을 안아온 첫 세대 녀성혁명가들을 성스럽게 추억하고 있다.

항일의 녀투사들은 자기의 꽃같은 청춘, 고귀한 피와 목숨과 바꾸어 이 땅에 조선녀성의 참다운 첫 노래들을 새겨주었다. 이렇듯 값비싼 대가로 개척된 조선녀성들의 음악사기에 우리 녀성들은 세대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녀성에 대한 노래의 력사를 추송아올수 있었던 것이다.

녀성들은 누구나 노래를 특별히 사랑한다. 생활의 모든것이 노래처럼 아름답고 노래처럼 깨끗하고 진실함을 바라는 녀성들의 순결한 마음은 그들에게 음악에 대한 날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하였다.

일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아름답고 즐거운 선율을 살며 일하기를 바라는 우리 녀성들에게 당과 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어와 선율을 골라 년대와 시대마다 명목들을 안겨주었고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자기의 꽃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각양각색의 주제와 양상의 명목들이 태어나게 하였다.

오늘날 조선녀성들에게는 수천년의 기나긴 력사를 봉상하고도 남을 녀성의 노래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사상주제별로 찾아보고 시대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우리 녀성들에 대한 노래는 그 수를 헤아릴수없이 많다. 세계적으로 녀성들에 대한 명목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녀성들은 조선녀성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녀성들의 지위가 날로 높아지는 위대한 사변이 일어났고, 그때의 생활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요해질 때마다 멋진 녀성의 노래들이 태어나고 하였다. 녀성들의 노래가 날이 깊어지는데는 녀성들에게 보다 많은 권리와 행복이 체재한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뚜렷한 증시로 되었다.

조선녀성에게 있어서 노래는 자기의 존엄이었고 권력이었다고 생활 그자체였다. 조선녀성이 자기의 진정한 노래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가졌다는것이 바로 자기의 존엄을 찾았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조선녀성의 노래의 발전력사는 곧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들이 극적전환이 일어난 위대한 전변의 력사였으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가는 녀성혁명가, 녀성애국자들의 창조고 투쟁의 서사시였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녀성들의 세계적속성이 풀리는 력사적인 사변인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되고 조선녀성의 음악사에서 특출한 분수령을 이루는 명목이 태어났다. 항일의 녀투사들 김중성어머님께서 새 조국건국의 날에 공장과 농촌의 녀성들을 찾아가시어 즐겨 부르신 가요 《녀성의 노래》였다.

해방후의 첫 녀성주제명곡인 이 가요에는 새 조선이 가져다준 녀성들의 운명에서의 위대한 변혁, 력사의 주인으로 된 조선녀성들의 위대한 력사적지위가 참으로 생동하게 반영되어 있다.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조선녀성은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공장과 농촌, 학교의 대문들이 녀성들을 향하여 활짝 열렸다. 마음껏 일하고 배우고 노래부를수 있는 자유와 행복의 활무대가 녀성들에게 펼쳐졌다. 밋밋한 누나는 식칼 들고 나오라고 혁명가요 《총동원가》를 부르며 항일의 녀투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생활, 세기를 두고 갈망하던 녀성의 새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이때부터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 자기의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조선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추호도 흔들린적이 없었고 《씩씩하게 못지장 장군님 두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라는 노래구절처럼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생활에는 약동하는 활력과 푸르른 희망, 무한한 행복이 넘쳐흘렀다. 근 70년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녀성의 노래》는 제목 그대로 우리 녀성들에 대한 노래의 대표작으로, 5천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이 된 조선녀성들의 존엄높은 삶의 선언으로, 이 나라 녀성해방사의 어제와 오늘, 레일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적결정으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녀성들의 운명에서 또 얼마나 놀라운 사변들이 일어났는가. 이 나라 녀성해방사의 어제와 오늘, 레일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적결정으로 빛나고 있다.

녀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애국은 손에 총을 잡고 조국수호의 길에 나서는데 있다. 항일의 녀투사들처럼 선군시대 녀성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도 지키고 조국의 미래도 지켜냈으며 총잡은 남편들과 함께 전초기의 아름다움 꽃으로, 보아 역고 강한 선군의 꽃으로 피어났다. 이러한 혁명적생활속에서 《나는 관의 안배로》, 《나는야 선군시대 총대치녀》, 《녀성해방의 노래》, 《명사들은 나를 보고 어머니로》, 《선군시대 녀성한가》와 같은 명목들이 나왔다.

남일이 통성변형하는 선군시대에 걸맞게 태어나는 조선녀성의 노래들은 새 세대 녀성혁명가들에게 안겨주는 시대의 값높은 표창으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다발로 되었다.

우리 녀성들이 향유하는 음악세계는 녀성의 지위와 역할의 끊임없는 변천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더욱 풍만해지고 이채로워지고 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에 보답하려는 우리 녀성들의 애국충성의 사사시여 더욱 눈부시게 수놓아 질수록 녀성들에 대한 노래는 명목의 대화하며 경이로운 선수님 두리에 굳게 뭉쳐 세계를 나아갈 것이다.

우정현, 리수정



애국의 한마음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육종연구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산림과학원 애국수목조적배양연구소에서-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김정수평양제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김정수평양제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가 수여되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달겨진 혁명고업들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여식이 6일에 진행되었다. 수여식에서는 김정수평양제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기일이 수여되었다. 3대혁명붉은기명칭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다. 이어 기사장 최혁, 직장장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리자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다양식에서는 설조개를 많이 양식하는것이 기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서호수산사업소에서 최근년간 설조개양식을 통이 크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대 령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을 다같이 벌고나가야 합니다.》 다시마양식뿐아니라 설조개양식도 대대적으로 하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은 걱정부터 앞세웠다. 그럴만도 하였다. 설조개양식을 하자면 많은 양의 피우개가 있어야 하겠는데 사업소자체로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김두현, 김정남동무를 비롯한

실리적인 말뚝식섭조개양식 서호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일꾼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 방도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설조개양식과 관련한 책들도 많이 보았다. 이 과정에 설조개양식에 말뚝식방법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설조개양식에는 피우개와 바줄을 리용하여 따오기로 시설물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불임감을 드리우는 폐식, 덕장을 설치하여 놓고 거기에 새끼조개가 붙은 불임감을 드리우는 덕장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사업소의 실정에서는 연안의 얕은 바다물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 새끼조개가 붙은 불임감을 걸어 말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일꾼들은 어느 한 립산사업소와 관계를 가지고 길이가 8m이상 되는 나무를 실었다.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내어다들었다. 그런데 바다밑에 새끼조개들이 붙어있지 않는 곳에 길이가 8m인 나무말뚝을 바다밑에 1.5m 정도 박고 우뚝바는 바줄로 서로 연결하였다. 그들은 말뚝과 말뚝사이, 바줄과 바줄사이 새끼조개들이 붙을수 있는 불임감을 잘서늘하게 발동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일꾼들은 제간에서 기술자들을 선발해서 이어 정지사업을 앞세우고 그들의 창조적적구성을 불러일으켜 말뚝박는 기계를 하루빨리 완성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요구한 도구들을 길에서 구해 달아주도록 뛰었고 또

다시마생산을 훨씬 늘일 목표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일꾼들과 종업원들 모두가 드넓은 양식장을 타고앉아 사나운 바다날개를 이겨내며 모배를 다그쳤다. 종업원들의 안해들도 모배를 최치하게 걸 매를늘이기를 등 시설물설치에서 혁신을 일었다. 장마철과 기판순수리정비를 하면서 수심척의 철저마진을 갖는 일을 동시에 내밀어 다시마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새로 늘인 양식면적까지 합쳐 수백정보의 면적에 다시마모를 내야 하는 건투는 위대한 일이 아니었다. 제일 긴장한것이 로력이었다.

도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경제적인가. 그리고 태양이 종전에 비하여 든든하기때문에 불임감이 새끼조개를 많이 붙여 크게 키워도 지장이 없이 없었다. 그만큼 설조개 수확량도 늘일수 있었다. 사업소의 설조개양식장에서는 불임감에서 새끼조개들이 너무도 왕성하게 자라 설모질이 끊어지지 않음과 격정할 정도로 말뚝이 붙었다. 이렇게 여러 정보의 설조개양식장을 만들어놓았다. 말뚝식설조개양식방법을 받아들인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종전보다 피우개를 거의 80%나 적게 쓰면서 양식장을 꾸릴수 있었다. 정보당 수산물 들린 피우개를 5정보당 10%밖에 쓰지 않게 되었다. 특히 청년동맹원들이 양식에서 매일 많은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생산된 다시마를 인민들에게 지체없이 보배추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글 및 사진 특약기사 리승철



사회주의는 여성중시의 화원, 자본주의는 여성멸시로 황폐화된 지옥

여성중심의 사회에 대한 다함없는 격찬의 목소리

여성중심, 여성중시의 대화원을 끌어온 동경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찾고 있다. 그들은 누리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나라의 꽃, 가정의 꽃으로 떠날수록 좋다고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두고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보면서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여성들의 신심과 락관을 넘친 모습은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조선의 가는 곳마다에서 여성혁명가라는 크나큰 믿음속에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고 있는 여성일꾼들, 여성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조선여성들은 끝없는 행복과 권리를 느끼며 애국의 발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

로씨야신문 《레베카》도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하였다.

1909년 3월 8일 미국 시카고의 여성노동자들이 독립투쟁자들의 각축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임금인상과 생활처지의 개선, 남녀평등권과 자유를 요구하는 구호들을 외치면서 조직적이고 단결력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그들의 투쟁은 전세계 진보적여성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3. 8 국제부녀절의 유래

1910년 단마르크의 수도 뮌헨에서 17개 나라 여성들이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여성대회에서는 미국 시카고의 여성노동자들에게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였으며 3월 8일을 매해

력사를 돌이켜보면 여성권리, 여성해방 등 여성문제를 절박한 문제로 보고 운운한 나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그렇듯 훌륭하게, 그렇듯 완벽하게 여성문제를 해결한 나라, 여성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고 자랑하는 나라는 세상이 없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 여성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온갖 차별과 천대, 멸시를 받으며 시들어가던 우리 여성들이었다. 부엌데기애 불과하였던 우리 여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오

는 남성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된 인생을 꽃피워나갈수 있는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사로 온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어 우리 여성들의 자주적인 삶과 존엄이 빛나고있는 것이다.

세계적업권행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콜레사》는 조선에는 여성중심의 법률적환경이 마련되어있다고 하면서 《지난날 온갖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어오던 조선여성들은 온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랑스럽고 힘

있는 존재로 되고있다. 일찌기 여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여성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남녀평등원칙을 몸소 작성 발표하셨다. 이른바 법칙이라는 여성들이 사회발전에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격찬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위크》는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여성들은 특별한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다. 그들에게 충분한 산전산후 휴가가 보장되고있다. 가는 곳마다 보건, 보육시설이 있다. 국가가 훌륭한 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건설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여성들의 행복상을 소개하는데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로씨야의 파프롱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3.8 국제부녀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여성들이 열렬한 축하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라오스여성동맹대표단 단장 씨씨와 함께 조선에서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국제부녀절 105돐이 되는 올해에도 우리 나라 여성들은 나라내 궁중과 행복간에 넘쳐흐르는 사회적행복에서 대체로 행사와 활동을 적극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여기가 여성들의 천국이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친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자본주의가 흥내낼수도 가진수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우리 나라 여성들의 행복상을 통해 깨우쳐 느끼고있다.

감상록에 비친 부리움과 경탄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았던 로씨야의 어느 한 신문사주필은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저는 오늘 이 멋진 유선중앙연구소를 참관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여성들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가 이

런 훌륭하고 값진 설비들을 갖춘 병원을 마련한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조선에서만이 있을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령도자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존엄과 인격이 훌륭히 담보되고있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가하고있다. 조선여성들의 증거에 넘친 모습을 보고 싶은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의 밝은 웃

여성들의 행복의 보금자리

《여성들의 부귀는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가 세우준 보육기자들이 성중시의 화원중에서 볼수 있다. 아이들의 밝은 웃

조선여성들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라오스여성동맹대표단 단장 씨씨와 함께 조선에서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또한 그들이 가정과 사회의 꽃, 혁명의 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이끌어 주고 보살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또한 그들이 가정과 사회의 꽃, 혁명의 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이끌어 주고 보살펴주고있다. 본사기자

온갖 형태의 차별대상, 각종 폭력의 희생물

자본주의 나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차별은 고질적인 병으로 되고있다. 가장 우선하게 나타나는것이 노동생활에서의 극심한 차별이다.

미국에서 사회보호를 제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그들은 목화농장과 담배농장 그리고 농산물포장장에서 장시간 혹독한 로동을 하면서도 인당 한푼 임금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다.

미국 동부지역의 조사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년평균 수입은 남성보다 훨씬 적으며 아프리카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9%, 라틴아메리카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8%에 그친다고 한다.

중동해안 지역의 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16%나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 가운데서 70% 이상이 여성들이다.

자본주의 나라 여성들은 늑거리일자리마저 메울수가 가슴조

지르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성적학대도 다를 바 없다. 미국의 감옥에서 해마다 약 6만명의 여성수감자들이 성적학대나 폭행을 당하고있다. 텍사스주에 있는 한 감옥에서 79%가 성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유럽사회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유럽적으로 여성들의 12~15%가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되고있다고 한다.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지난해 128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친구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

유럽에서는 3월에 1명 또는 1주일에 2명의 여성들이 가정폭력범죄에 의해 목숨을 잃고있는 나라들이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최근년간에 800여명의 여성들이 가정폭행을 당하였다.

가정에서 학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된 많은 자본주의 나라 여성들은 감옥을 유인한 피난처로 정하고 부정 범죄를 저

지르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성적학대도 다를 바 없다. 미국의 감옥에서 해마다 약 6만명의 여성수감자들이 성적학대나 폭행을 당하고있다. 텍사스주에 있는 한 감옥에서 79%가 성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유럽사회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유럽적으로 여성들의 12~15%가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되고있다고 한다.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지난해 128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친구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

최근 로씨야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외국으로 쓰여진 책과 인민의 투쟁업적이 모두 망각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애국주의 교양은 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되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자라나는 세 대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애국주의교양이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있는 부연대통령은 학교들에서 이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최근 로씨야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70년이 되어오지만 침략과 전쟁발발의 온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 곳곳에서 신과썩은자들이 제세사범을 활개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흉악하게 싸운 영웅들의 위훈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지난해에 오스트리아에서 쓰러진군인기념비가 모독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벨기에에서 조국수호자의 수도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나타났다.

유럽위원회는 한 회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모든 전승자들이 기억되어야 한다고 역언하였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단주의적행동이 확대되고 인종주의, 민족배우의 힘을 선전하고 파시즘과 인종우월론을 전파시키는 정당들이 늘어나고있다. 반동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떠받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외국으로 쓰여진 책과 인민의 투쟁업적이 모두 망각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애국주의 교양은 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되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자라나는 세 대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애국주의교양이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있는 부연대통령은 학교들에서 이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애국주의 교양에 힘을 넣고 있는 로씨야

로씨야에서 지난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 날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해마다 기념하는 이날은 자라나는 세 대들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쟁로병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을 똑똑히 알도록 하며 군인들이 조국수호자의 영예감을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으며 로씨야에서는 다양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고 로병들과 군인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했거나 현재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을 그 가정에서 경의를 표시하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푸틴이 이날에 즈음하여 크레믈린성벽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진정예는 위대한 조국전쟁로병들과 로씨야연방 수상, 연방평의회 의장, 국가회의의장, 대외행정부 책임자, 국방상, 기타 상들과 국가 및 정치활동가들, 로병단체대표들이 참



미국에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시위

포기할수밖에 없는 모성의 권리

여기에 모성애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의 한 토막이 있다. 어느 한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사는 청년이 있었다. 그 단골 어느날 그 청년은 거리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로 두눈을 잃게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는 절망감에 빠져있던 청년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눈을 기증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어 그가 한쪽눈을 수술하고 봉대를 푸는 날이 왔다. 봉대를 푸는 순간 청년은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그의 앞에는 한쪽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것이다. 그에게 한쪽눈을 기증한 사람은 다름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두눈을 다 주고싶었지만 그러면 나에게 내가 집이 필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못 잊지 못하였다.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자녀교육비, 치료비등가 등 장애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고도 전하였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여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만5000\$에 달하며 산모의 하루입원비는 최고 12000\$ 가, 갖난아기의 하루입원비는 14000\$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즉 보장되었는 수입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여성들에게 있어 병원에서 해산은 어렵도 없는 일이다.

해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당장 해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문전걸걸을 당해 한지에서 해산하는 비극이 수시로 발생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임신부들이 베푸는 아이들의 학비격저를 한다는 이 아이가 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성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운명. 이것은 모든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가 면을 필연적산물이다. 본사기자 박송영

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포함시킨 《로씨야연방의 새로운 군사교리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나라의 국경가이기에 나토의 무력이 집결되고 미사일방위체계가 전개되는 등 현상이 점점 정세와 관련하여 로씨야가 지난 시기의 군사교리를 수정하면서 애국주의 교양문제를 사업에 포함시켰던것이므로 이 새로운 교리를 내놓고있었다는것을 밝 알수 있다.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로씨야가 진행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정령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력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력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맞고 력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애국주의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사업들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천연가스개발계획 팔레스티나가 가지대야말다에 매장되어있는 천연가스를 개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은 천연가스매장지를 개발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자급원천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2월 23일 팔레스티나정부가 밝혔다.

마약 압수 폴로미야경찰이 2월 26일 뿌마요주에서 마약수색작업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431kg의 코카인이 압수되었다. 한편, 페루는 반마약당국이 최근 해안지역에서 마약수색작업을 벌였다. 작전과정에 배에 실은 짐속에 숨

겨져있던 약 2kg의 헤로인도 압수되고 관련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여러 나라들 협조 케니아와 앙골라가 2월 25일 금융분야에서 협조해 강화하고 두 나라사이의 증권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한편 최근 기니와 코트디부르르는 전염병방지기에서 쌍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로씨야와 팔스가 2월 23일 사회,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에 남아프리카와 르브니코라가 지역적합전을 위한 사업에서 협조해나가기로 하였다.

국제축구련맹 여자구락부월드컵경기대회를 조직할것을 계획

국제축구련맹이 2017년 부터 여자구락부월드컵경기대회를 조직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3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는 국제축구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토의결정된다. 련맹은 여자구락부월드컵경기대회의 조직이 여자축구의 발전을 적극 추동해 줄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3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는 국제축구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토의결정된다. 련맹은 여자구락부월드컵경기대회의 조직이 여자축구의 발전을 적극 추동해 줄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3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는 국제축구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토의결정된다. 련맹은 여자구락부월드컵경기대회의 조직이 여자축구의 발전을 적극 추동해 줄것이라고 밝혔다.